

탄소기업, 전주에 설비투자 확대

전주의 중소 탄소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.

효성이 2013년 5월 전주 소재 탄소 공장을 준공한 것을 계기로 전주시의 탄소기업 우대 정책이 힘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.

하이엠시, 한국에이씨엠, 바로텍시너지 등 탄소기업 13사는 하반기부터 전주 친환경 첨단 복합산업단지에 공장 신설 등에 총 400억원을 투입하는 등 투자를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.

전주시는 공장 건설 등을 돕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건축허가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7/18>